

2018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 후기 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길 따라 2,045km



2017년, 나는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삶을 그려낸 뮤지컬 <영웅>을 두 번이나 볼 정도로 안중근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던 중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하별빈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여 모두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다. 나 역시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기획된 <1박 2일>를 아주 인상 깊게 봤던 터라 하얼빈 방문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체험학교'에 공모했고, 운 좋게도 나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

'2018년 7월 28일, 하얼빈'에서 우리 탐방팀은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첫 발걸음을 떼었다.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 사적지 외 동북 3성의 여러 문화유산지도 함께 탐방을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탐방의 부제에 맞게 안중근 의사 사적지를 중심으로 짧은 소감의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가 첫날 묵었던 숙소 바로 앞은 <1박 2일>에서 나의 눈물샘을 가장 많이 자극했던 곳이며,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역사적 현장인 하얼빈역이었다. 탐방 전 주변에선 역내는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들 했지만 나는 의거를 앞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 들어서서 이토를 기다리는 심정을 공감하고 싶었고, 또한 저격한 그날의 플랫폼은 안중근 의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여겼기에 탐방지 중 가장 기대했던 곳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저격의 현장인 하얼빈역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역내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중국의 느려터진 공사 진행을 탓할 수밖에

에... 또한 이 공사로 하얼빈역 귀빈실을 개조하여 만든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옮겨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가기 전에 우리는 조린공원에 먼저 들렀다. 이곳은 원래 하얼빈공원이었는데 중국의 항일 영웅 이조린 장군이 피살된 이후 유해를 안장하면서 이조린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원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내가 죽거든 하얼빈공원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나를 조국에 반장해 달라')에서 언급된 곳이며, 거사를 벌이기 사흘 전에 거사 동지인 우덕순, 유동하 등과 함께 거사의 성공을 다짐했던 의미 있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 비장한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느껴보고자 했다. 조국의 독립을 강하게 염원했던 곳이기엔 차마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독립을 기다리셨다가 맞이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곳에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맞이하셨더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 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공원을 거닐었다.

발길을 돌려 도착한 안중근의사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나는 온몸에 뒤틀린 모를 전율을 느끼며 둘러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타국인 중국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안중근 의사. 그래서인지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출생부터 순국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국어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사형 선고 일을 앞두고 일제의 갖은 회유와, 악상(惡喪)에 대한 죄송스러움에, 고민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께서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라'는 뜻의 편지를 전하셨다. 이 편지는 안중근 의사에게는 끝까지 독립의지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었겠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어머니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었을 것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컥했다. 과연, 자식으로 하여금 '너는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 정당한 일을 했으니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시모시자(是母是子)

라 했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고. 조국의 어머니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런 어머니 덕택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조국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한바탕의 아픔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인 마지막 장소로 이동했다. 무더운 날씨를 뚫고 도착한 곳은 안중근 의사가 144일의 수감생활 후 사형을 당했던 여순감옥. 전시관을 둘러보기 전 우리는 먼저 안중근 의사 추모관에 둘러 현화를 하고 간단한 추모식을 진행하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여순의 국제지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까지 다 보고서야 나는 벽면에 쓰인 맺는말을 보았다.

"역사교육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기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후세들에게 강력한 신념과 정당한 행위를 갖도록 한다. 만약 한 민족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역사교사로서 무지함과, 머릿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놀라는 내 자신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안중근 의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낯선 중국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 빨리 발굴하여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후손들의 최소한의 도리임을 생각해 본다.

역사책 몇 줄로 서술된 사실들을 책상에 앉아 단순히 상상만으로 끝내는 역사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그 의미를 느끼는 역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는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의식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에 감사드린다.

글 여지연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교사